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35.1%...의무비율 '턱걸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단위:명·%)

의무 대상	채용 인원	지역 비율
합계평균	649	35.1
한국전력공사	232	71
한전KDN	148	48
한전KPS(주)	144	4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	17
한국농어촌공사	19	16
한국인터넷진흥원	29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	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	6
한국콘텐츠진흥원	15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3
한국전력거래소	0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	0

(자료:국토교통부)

13곳 의무대상 649명 중 228명 채용...5년 연속 평균 밑돌아
채용률 증가 '통계 착시'...실제 채용 3년 새 167.5명 42% 급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35.1%를 기록하며 의무 채용비율 30%를 넘겼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 채용률은 의무 채용비율을 도입한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전국 13개 도시 평균을 밑돌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은 의무와 대상 채용인원 649명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28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전국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닌 13개 도시 130개 기관의 지난해 채용비율은 38.4%(3544명 중 1359명)이었다.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13개 도시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강원(61.3%)이었고, 대구(45.6%), 제주(45.0%), 울산(44.6%), 충남(38.6%) 등 5개 도시가 전국 평균

을 웃돌았다.

나주 혁신도시는 전북(32.8%)과 경남(33.2%)에 이어 채용비율이 하위권에 들었다.

최근 5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늘었지만 전국 평균 채용비율을 해마다 밑돌았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8년 21.1%를 시작으로 24.6%(2019년)→27.0%(2020년)→30.8%(2021년)→35.1%(2022년)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채용률은 23.4%→25.9%→28.5%→34.2%→38.4% 등으로, 나주 혁신도시는 해마다 이를 밑돌았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이 해마다 늘어난 것은 '분자'가 커져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져 생긴 통계 착시이기도 하다.

지난 4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에 채용

된 지역인재는 36.5%(-131명) 줄었지만, 배정된 의무 채용인원은 61.8%(-1049명) 줄며 감소 폭이 1.7배에 달했다.

13개 기관 지역인재는 2018년 359명에서 이듬해 395.5명으로 늘었지만 2020년 346명, 2021년 287명, 지난해 228명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역인재 채용이 3년 새 167.5명(-42.4%)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 13개 기관의 의무 채용인원도 1698명(2018년)→1610.5명(2019년)→1280.0명(2020년)→932명(2021년)→649명(지난해) 등으로 감소했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인원의 31.1%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71명을 채용했는데, 이는 2018년(219명)보다 148명(-67.6%) 줄어든 규모다. 한전 지역인재 채용이 13개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31.1%로, 4년 새 반토막 났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기관은 모두 8곳이다.

48명이 감소한 한전과 한전KPS(-35명), 한국전력거래소(-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명), 한국농어촌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각 3

명),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각 1명) 등이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 평균(38.4%)을 밑돈 기관은 한전(30.6%)과 한전KPS(31.3%), 한전KDN(32.4%), 콘텐츠진흥원(33.3%), 인터넷진흥원(34.5%) 등 5곳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력거래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의무 채용인원과 실제 채용인원 이 아예 없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채용비율 18%에서 해마다 3%포인트를 상향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기관은 올해까지 정원 1569명을 줄이기로 했다. 각 기관은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인재 할당 채용을 준비해왔던 광주·전남 청년들의 고용 파고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뭄극복 함께 노력해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김영일)은 최근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절수기와 페테병으로 만든 '생활용 가뭄'을 나눠주며 '가뭄 극복, 탈 플라스틱 생활화 운동'을 벌였다. <수자원공사 제공>

'최강 한파'에 한전·전력거래소, 비상 근무체계 유지

일일 수급 상황 점검 등

설 연휴 마지막에 올해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비상근무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중요 전력 설비를 사전 점검하고, 연휴 동안 비상 근무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욱 한전 전력그리드 본부장 등 경영진은 지난 23일 한전 나주 본사 전력계통운영센터와 나주

급전변전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

한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본사에는 모두 18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지역본부에서는 송변전 560명, 배전 778명이 비상근무를 하거나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구내정전 발생 때 한전(123) 또는 전기안전공사(1577-7500) 고객센터로 정전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력설비 안정적인 운영과 비상대기태세 유지를 통해 전국적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고 설 연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도 오는 26일까지 '경영진 주관 일일 수급 상황 점검·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정동희 이사는 24일 중앙전력관제센터를 현장 점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구조조정' 여파...좁아진 공공기관 채용문

정규직 신규채용 축소 전망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

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던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1만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정기총회서 조합원 5명 경품 증정

광주문화신탁은 최근 '제30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행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영철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경품 행사에 당첨된 조합원 5명에게 각 순금 3돈을 전달했다.

광주문화신탁은 지난 2016년부터 '조합원 행복 이벤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 조건을 충족한 금융거래 조합원에게 경품 응모권이 주어진다. 추첨일까지 해당 조건을 유지하면 경품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신탁 관계자는 "조합원 행사 응모 조건 등 세부 사항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문화신탁 지점을 찾아 창구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지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리3(서항동)